내게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기

(마가복음 1:21~28)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게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게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기'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자료들을 접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 요한과는 다른 관점에서 썼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관점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를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행하신 기도에서 거듭 확인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느끼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건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더러움을 극복하는 것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먼저 귀신이 더럽다고

강조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귀신 중에서 깨끗한 귀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더러움을 강조한 이유는 사탄 마귀 귀신이 인간에 대해 갖는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더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인간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을 더러움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인간의 더러움이 사탄 마귀 귀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정작 그 더러운 귀신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신의 활동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인간을 더러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활동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면 모든 인간은 더러움의 바다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더러움 속에 살게 된 이유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곧 하나님이 가지신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인간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러움의 바다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 그 더러운 귀신의 정체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가상의 존재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깨끗한 귀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 자체를 파악할 수는 없어도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대표적 증상은 더러운 상태를 아주 편하고 친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물론 육체적 물리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세리나 창기나 비유 속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경우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더럽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육체적 물리적 혹은 윤리적으로는 깨끗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비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더러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만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더러운 것을 더러운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데도 스스로를 깨끗하다 여기며 너무 편안하고 친근하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러움의 기준을 명확하게 앎으로써 귀신에 대한 자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

러 번 말씀드렸듯이 깨끗함의 기준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이 바로 마음에 합당한 것이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더러움은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란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도의 물건들이나 귀중품들일 수도 있고, 가족을 비롯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대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이고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들입니다. 설령 직장이 없거나 쫓겨나게 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까지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대상으로 허락해주셨습니다. 자연과 물건과 사람과 상황과 처지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있어야 될 것들로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에 의해서 깨끗함과 더러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당한 자리에 있다면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내 마음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 안에 계셔야 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한분만을 마음에 모시면 나머지 모든 대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들을 담았다면 불결해진 것이고 더러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에게 더러움이 전해지고 제자리를 벗어나 삶 전체가 더러워집니다.
문제는 이 더러움을 편하고 좋게 여기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때에 하는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집을 나오기 전에 배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안방에 변을 보고 갑니다. 물건을 도둑맞은 것도 분하지만 안방 한복판에 배설물을 보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담지 않은 인간의 마음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에 담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안방에 배설물이 있는 것보다 더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도 담고 건강도 담으면 오히려 도둑의 배설물을 아까워하며 꼭 껴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지경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귀신들린 상태입니다.
안방과 내 마음을 비교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안방과 같습니다. 집 주인이 잠을 자는 곳이 안방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하나님의 크기로 지음 받았습니다. 안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배설을 하면 더러워지듯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대상을 들여놓으면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재물도 사업도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러나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하자면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이지만 마음에 담기는 순간 배설물처럼 더러워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더러운 귀신이 들린 증거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대해서만은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관계하며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 것들을 담음으로써 불결한 상태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단순히 사회적인 지명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ἐξουσία)는 엑크와 웃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엑크는 ~로부터 나왔다는 전치사이고 웃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전하셨기에, 대중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권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서기관들은 배우고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지만 정작 하늘과 연결됨이 없었기에 본질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늘과 연결 될 수 없었던 것은 마음이 더러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의 더러움은 발각되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모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기계적으로 순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더러움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더러운 이익과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러움과 하나님과의 연결이 상극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질 때에 마음의 더러움은 발각됩니다. 친근히 여기고 좋아하던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이르는 연결의 통로를 날마다 외치는 이유는 더러운 귀신이 발각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연결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연결의 중요성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더러움이 발각됩니다. 문제는 이 더러움의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러움의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자녀를 품었다면 영적인 관점에서는 더러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하나님만 계셔야 할 장소에 자녀라는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김치와 하얀 실크 블라우스의 관계와 같습니다. 김치는 입에 넣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하얀 실크 블라우스에 김치 국물이 쏟아졌다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깨끗하지만 서로 만나는 순간 더러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치는 김치 그릇에 있어야 하고 입안에 있어야만 깨끗함이 유지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자체는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마음에 담는 것은 김치 국물을 하얀 실크 블라우스에 쏟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는 이것이 더러움임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더러운 귀신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본문 30절 이후에 열병과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더러움으로 인해 나타난 열병과 질병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언급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은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사명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회당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치유해주시고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러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며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연관성 안에서 언급된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은 원문에서 헬라어 퓨레토(πυρέσσω)로 말라리아를 일컫습니다. 고열과 탈수 현상을 동반하는 말라리아는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열병을 치료하신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안식 없는 삶의 가장 특징적인 본질로 보았습니다. 마음의 더러움으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열병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러움이 익숙하고 친근해지면 안식이 없는 열병과 같은 삶이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국가들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10명 중에서

9명은 탈진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두에 있지만 이러한 증세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발로 명상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의 핵심은 잠깐의 멈춤입니다. 명상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2분간의 멈춤을 권장합니다. 열병에 걸린 환자처럼 삶에 끊임없이 시달리지 말고 2분이라도 멈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혜민 스님이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수상록이 지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삶의 열병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행하게 하는지를 파악하고 멈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 열병에 대한 궁극적 해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멈춤 없는 삶의 열병이 가져온 심각한 폐단과 부작용을 느껴서 대처하려고 하지만 그 대처법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열병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특징이 창세기 3장 17~19절에 나타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나 깨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이 쉼 없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끊임없이 열이 나는 상태로 소진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반응하며 희로애락을 반복하는 동안 지쳐갑니다. 뜻하다가 좌절하지만 또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지기를 반복하는데 이 모습이 열병에 걸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열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더러움을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쉼을 얻고 싶다면 2분간의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 일시적 평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명상은 다시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시적 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이나 성령을 모두 불로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마치 불의 혀와 같았다고 언급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옥 또한 뜨거운 불로써 고통을 받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불을 생각해봅니다. 그 불은 떨기나무에 붙었으나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일어나게 될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 사십 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로 살 때에 소모되는 모든 필요한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불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열병을 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열심(熱心)히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병에 걸린 것이고 불에 탄 나무가 재가 되듯이 나를 소진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불태우는 삶에는 쉼이 없고 탈진만 있습니다. 생각에도 감정에도 의지에도 행동에도 쉼이 없지만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더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삶의 열병은 치료되고 피곤과 곤비함이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태우며 재로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열병이 생기는 이유는 마음의 더러움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있어야 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이라도 마음에 담을 때에는 더러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움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를 평생 동안 뛰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뛴 결과 남는 것은 지치고 늙은 몸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결과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에 더러움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몰랐고 거부해야만 하는 상태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강해지면 더러움은 발각되고 사라집니다. 반대로 더러움이 강해지면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그 결과 열병을 앓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마음의 자리에 사업이나 직장을 담았다고 해봅니다. 그러면 삶에서는 열병이 시작됩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사장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부모가 마음에 자녀를 들여놓은 경우에도 열병을 앓게 됩니다.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고민이 심각합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도 걱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녀의 직장 문제로 인해 걱정합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로 인해 고민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끝도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걸린 열병 이후에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더러움이 발생하면 열병 이후에 질병이 생깁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44절에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생각하지 못한 채 오직 질병이 나은 것에 모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술한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정의부터 바르게 내려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마음의 더러운 상태에서 생각하는 건강이란 USB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료를 USB에 저장하듯이 건강을 몸에 저장해두려고 합니다. 암에 걸렸다면 몸 안에서

일어난 암을 퇴치하고 건강해진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한의학에서도 인간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눔을 통해 정해진 체질에 건강을 귀속시킵니다. 그 사람의 몸 안에 건강이라는 문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러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더러움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건강의 정의 또한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것은 단지 독립된 몸의 어떤 장기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몸에 암이라는 상태를 허락하시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암이 발병하도록 허락하셨고 보고 계셨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 암을 신호로 해서 나의 더러움을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고 싶다면 몸이 하나님과 별개의 독립된 영역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속이 안 좋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주관하신 결과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독립된 몸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적이 없기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렸다면 오히려 암을 신호로 삼아 하나님을 보는 기회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병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촉구하는 신호라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더 이상 신호가 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병은 계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병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독립된 몸의 이상 현상으로만 생각한다면 병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병은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설령 건강조차도 마음에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몸에 생긴 암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암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부터 이미 절반은 나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암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로 비유 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사탄의 사자와 같이 육체에 어려움을 주는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자만해짐을 막기 위한

장치로써 질병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몸이라는 영역이 하나님과 구분되고 독립된 영역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로 비유되는 질병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게끔 오히려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는 이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42살 젊은 아빠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이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뇌종양은 내 마음의 암을 고치기 위한 치료약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에게 뇌종양은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한 진정한 평강의 상태였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균형 있게 평강을 유지하는 상태임을 깨닫게 되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따로 챙겨야하는 독립된 영역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 조화롭게 평강을 이루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건강입니다.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몸의 약한 부분을 유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몸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여 영과 혼과 육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상태가 진정으로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열병과 질병을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곧 진정한 평강이 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담음으로써 더러움이 발생하게 되면 육체의 질병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됩니다. 육체를 건강을 담는 주머니나 USB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과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나병환자를 고치시고도 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단지 병이 나았음을 기뻐하며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전하시고자 했던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회복되는 땅과 하늘의 연결에 대한 복음의 오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으니 이러한 오해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동안은 더러움을 모른 채로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왔습니다.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낄 정도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삶은 열병과 질병에 시달려왔습니다. 열병과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안식일의 회복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더러움을 없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졌고 그 결과 삶에는 쉼이 없어졌습니다. 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열병이 생긴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또한 더러움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더러운 것이 진짜 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들을 담음으로써 더러움은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육체를 건강의 주머니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건강이란 독립된 영역이 아닙니다. 몸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강해져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내 몸은 내 삶 전체의 평강을 위해서 필요한대로 주장해가시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암으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내용은 암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몸에 암도 주관하심을 보면서 암을 계기로 삼아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연결의 상태가 이루어진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대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셔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채워지셔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연결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되심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본래 수평이었던 하나 되심의 방향은 수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마음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함을 알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더러움의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더러움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더러운 줄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순간도 마음에는 하나님 이외의 대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에서 내 지정의가 활용되면서 관계하고 대처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상인 배우자에 대해서조차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할 합당한 위치는 내 마음 바깥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열병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기

를 바라시며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러워진 마음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죽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이 들어와서 더러움이 생겨나면 하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고 삶에서는 열병과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건강을 염려하게 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건강한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건강이 들어와서 더러워진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나면 내 몸에 걸린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설령 질병으로 인해 죽는다고 해도 저주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 죽는 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을 먼저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몸에 생긴 질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건강에 대한 개념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 저주스럽게만 보이던 질병이 어느덧 은혜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병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상태임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의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담고 사는 것은 일견 당연해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 더러운 상태에 익숙해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사업문제로 인해 삶에서 열병과 질병을 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건강을 담는 독립적 주머니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이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주관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내 몸의 질병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몸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하면 70% 이상의 질병들은 하나님과 연결을 회복시키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마음의 연결을 위해 몸에 이상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더러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어코 하나님과의 연결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